

# 韓國塔婆의 舍利藏置小考

金 禧 庚

佛敎信仰諸國에서, 우리나라처럼 塔內에 藏置한 遺物이 多彩롭고 實에 있어서도 優秀한 나라는 적으리라고 믿어진다. 이들을 한데 묶은 韓國塔婆舍利目錄<sup>①</sup>이 刊行된 後, 그의 三분의 一에 該當하는 約五〇基의 資料가 ※收集되었으므로 中間報告를 檢하여 簡單히 考察해 보려고 하는 바, 內容物의 發見이 學術的 調査를 거친 것보다도 盜掘 또는 偶然한 機會에 出世한 것이 多數이므로, 記錄自體가 不充分한 것도 적지 않기는 하나, 여기에서는 確實한 것만을 다루고자 한다.

(1) 考古美術同人會資料第九輯 一九六五, 一一, 二〇刊

## I、舍利藏置가 發見된 塔

新羅塔에서 三九基(石塔三三、浮屠五、塚塔一、木塔一)、百濟塔一基(木塔)、高麗塔二五基(石塔二二、浮屠三)、李朝塔四基(石塔一、木塔一、浮屠二)計 八一基를 헤아릴 수 있다. 舍利藏置處를 보면, 新羅塔은 石塔에서 塔內(藏置處未詳)를 除外하고 第一塔身이 最多數이고, 二層、三層 基壇部 等の 順位이며, 數箇處인 例는 忠州中央塔一基。高麗塔도 第一塔身이 首位이고, 第二塔身 基壇部의 차례이며, 數箇處인 것은 長蝦里三層石塔、普願寺址五層石塔 및 月精寺八角九層石塔의 三基。李朝塔은 數箇處가 水鏡寺五層石塔一基。木塔은 百濟塔이 心礎石下一、新羅塔은 心礎石一。塚塔은 新羅塔에서 二層에 一基 있을 뿐이다。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第一塔身에 舍利를 藏置하는 例가 各時代를 通하여 斷然 最優位 인을 알게 되고, 塔內에서 數箇處에 藏置하는 例를 層塔別로

보면, 三層石塔에서 二例뿐이고, 나머지는 五層以上の 塔임이 눈에 띄는데, 相輪部는 小台里五層石塔 一例가 있을 뿐이다.

## II、舍利 孔

舍利孔이란 結局 舍利藏置를 爲한 것이니, 1表에서도 본 바와 같이 어느 時代나 初層塔身에 穿設한 首位를 차지하며, 其數는 一二六基에 達하고 있다. 다음에 舍利孔의 形을 보면, 百濟에는 圓孔이 木塔二、新羅는 石塔에서 方孔이 圓孔의 三倍, 木塔은 거의 方孔이나, 高麗에 들어서 는 石塔 浮屠 모두 圓孔이 훨씬 더 많아지고, 李朝에선 서로 비슷한 比率이다.

## III、舍利供養品

多樣한 供養品中、重要한 것들 몇가지 들면  
佛像… 塔內安置의 例가 李朝塔에 있어서 他代보다 많은 傾向을 보이며, 新羅、高麗에는 金屬製佛像이 많으며, 木製菩薩像은 李朝에서 보인다.

佛經… 無垢淨光陀羅尼經이 보임은 거의 羅代이고, 麗代는 陀羅尼經斷片으로 보여지는 것이 發見되었었고, 純金經板은 麗代뿐이다.  
舍利小塔… 土塔、木塔、蠟石製小塔、靑石塔、靑銅塔、銀製鍍金塔、金銅塔、水晶塔等이 있는데, 羅代에 土塔、木塔、蠟石製塔이 많고 麗代에 들어 木塔 蠟石塔이 羅代보다 더 많아지며, 金銅舍利塔도 보이나, 百濟에는 아직 發見例가 안 보인다. 이들은 舍利奉安處로 쓰인 것도 있고, 陀羅尼經에 依한 供養小塔으로 納入한 것이 있는데, 陀羅尼經의 信仰에 따르는 例로 믿어지는 것은 傳皇福寺址三層石塔<sup>②</sup> 金銅舍利函의 四面周圍에 九九個鍍刻함은 小塔供養의 例라 하겠고, 禪林院址三層石塔內發見의 約七〇基<sup>③</sup> 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內發見土塔九九基<sup>④</sup> 扶餘長蝦里三層石塔內發見金箔木造小塔三基<sup>⑤</sup> 公州東

I. 遺物이發見된塔

時代	藏置處 塔種	塔內	基壇部	基壇下	一層	二層	三層	四層	五層	六層	七層	心礎石	數箇處	相輪部	計
百濟	石浮屠塔														
	木塔											1			1
	木塔											1			1
	計											1			1
新羅	石浮屠塔	7	4	2	8	4	4		1				1		32
	木塔	5													5
	木塔					1									1
	計	12	4	2	8	5	4		1			1	1		39
高麗	石浮屠塔	4	3	1	6	3							4	1	22
	木塔	2		1											3
	木塔														
	計	6	3	2	6	3							4	1	25
李朝	石浮屠塔	2													2
	木塔											1			1
	計	2										1			3
年代未詳	石浮屠塔	9	1		1										11
	木塔	2													2
	計	11	1		1										13
總計	計	31	8	4	15	8	4	1		1		3	5	1	81

II. 舍利孔이 있는塔

時代	施孔處 塔種	基壇部	基壇下	一層	二層	三層	四層	五層	六層	心礎石	數箇處	塔身不明	計
百濟	石浮屠塔												
	木塔									2			2
	木塔									2			2
	計									2			2
新羅	石浮屠塔	1	2	33	12	6	1		1		5	4	65
	木塔	4		1									5
	木塔				1								1
	計	5	2	34	13	6	1		1	8	5	4	79

高麗	石塔		11	2	2	2			4		21		
	浮屠	1	4								5		
	磚塔												
	木塔												
	計	1	15	2	2	2			4		26		
李朝	石塔								1		1		
	浮屠	1									1		
	磚塔												
	木塔							1			1		
	計	1						1	1		3		
年代未詳	石塔		4		1	1			1	8	15		
	浮屠		1								1		
	磚塔												
	木塔												
	計		5		1	1			1	8	16		
總計		7	2	54	15	9	4		1	11	11	12	126

Ⅲ. 舍利孔의 形

時代	塔種	孔形別	圓孔인	方孔인	孔形不明	計
			塔數	塔數	塔數	
百濟	石塔					
	浮屠					
	磚塔					
	木塔		2			2
	計		2			2
新羅	石塔		10	31	24	65
	浮屠			1	4	5
	磚塔				1	1
	木塔		1	7		8
	計		11	39	29	79
高麗	石塔		12	9		21
	浮屠		4		1	5
	磚塔					
	木塔					
	計		16	9	1	26
李朝	石塔		1			1
	浮屠				1	1
	磚塔					
	木塔			1		1
	計		1	1	1	3
年代未詳	石塔		5	6	4	15
	浮屠				1	1
	磚塔					
	木塔					
	計		5	6	5	16
總計			35	55	36	126

院里三層石塔內發見蠟石製小塔八基⑥、金剛山南普賢寺址三層石塔內發見木製小塔⑦四基、釋迦塔內發見木塔一三基⑧、扶餘加神山舍利塔發見木塔⑨春宮里三層石塔內發見蠟石製小塔二九基⑩等이 있는는데、이小塔들은 모두 밑에 孔이 있으나、春宮里三層石塔內의小塔은全然 孔이 없고、公州東院里塔內小塔에서도 孔이 없는 것이一部 있다. 이들小塔發見地를 地域別로 본다면、金剛山以北所在塔에서는發見例가 안보인다.

- (2) 李弘植·慶州狼山東麓三層石塔內發見品(韓國古文化論攷)
  - (3) 秦弘燮·禪林院寺址三層石塔內發見小塔(美術資料九)  
黃壽永·禪林院址石塔發見小塔五基(美術資料十)
  - (4) 黃壽永·奉化西洞里東三層石塔의舍利具(美術資料七)
  - (5) 金永培·扶餘長蝦里石塔의舍利藏置(考古美術四一三)  
拙編·韓國塔婆研究資料 p.156(考古美術資料二〇輯)
  - (6) 金永培·公州東院里三層石塔內發見遺物(考古美術四一八)  
李殷昌·東院里石塔內發見蠟石製小塔(史學研究十七)
  - (7) 拙編·韓國塔婆研究資料(考古美術資料二〇輯 p.33)
  - (8) 文化財(佛國寺釋迦塔等)破壞 및 收拾經緯(二)(考古美術七一)
  - (9) 扶餘加神山(舍利塔發見木製小塔(圖鑒十四))
  - (10) 稿 稿·春宮里兩塔內發見遺物과 補修概要(考古美術七一三)
- 塔誌石·發見數를 보면、新羅四、高麗로서 銅誌板은 麗에 一例뿐이고、百濟、李朝엔 그 例가 아직 없다.
- 玉類·유리玉이 羅代에 가장 많고、다음에 水晶玉의 順인데、麗代는 羅代보다 玉類發見例가 적고、특히 水晶玉이 羅麗 李朝를 통하여 變함 없이 쓰인 것이 눈에 띈다.
- 錢貨·常芬皇寺塔에서(卍) 平五銖一、(北齊國文宣帝元年 A.D. 五五〇)、昌林寺址三層石塔의 金銅開元通寶一、(唐玄宗元年 A.D. 七一二)、令傳寺址普濟尊者舍利塔의 皇宋通寶一의 三例가 있는데、모두 羅塔에서 外國錢貨가 一枚씩 發見된은 흥미있는 일인데、印度塔에서 外國錢貨가 多量으로 發見됨과 判異하다.

(11) 古蹟圖譜三을 비롯한 他記錄에는 常平五銖一枚만 報告하고 있으나、高裕燮 先生은 崇寧通寶(宋徽宗三年 A.D. 1104)의 發見도 報告하고 있음(東方學志 第二輯)

裝飾具 및 布類·金銀의 環類가 各時代를 通하여 보이며、女性의 日常用品은 新羅의 芬皇寺塔一基가 있는데、建塔年代를 善德女王時로 본다면、偶然한 事實은 아닌듯하며、布類의 斷片은 거의 羅代에만 보이는 것 같다.

銅鏡·發見例가 五基로、羅塔이三(忠州中央塔二枚、昌林寺塔一枚、釋加塔二枚、麗塔은 二基로 光州西五層石塔一枚、月精寺八角九層塔이 四枚로、가장 枚數가 많다.

甕·百濟를 除外한 各時代를 通하여 發見되는데 銀、銅、金銅、靑銅 製가 있으며、麗代에 가장 많이 使用되었다.

舍利容器

函은、石、金銅函等이 있는데、石函은 羅代에만 보이고、金銅函은 羅麗에 若干보인다.

盒類·漆、銅、靑銅、金、銀、金銀、石水晶、靑瓷盒等으로 가장 種類가 많으며、銅盒은 羅代에 第一 많고、銀、靑銅盒이 다음가나 麗代에는 안보인다.

靈類·銀、水晶、靑銅、金銅製等이 있는데、銀靈은 百濟를 除外한 各時代를 通하여 使用되고、水晶製는 麗代에만 보인다.

舍利瓶·유리、銅、銀、金銅、靑銅、水晶、木瓶等의 많은 種類가 있는데、유리瓶은 斷然 羅代에 많이 쓰임이 注目되고、他代엔 거의 없다.

(三層)、傳皇福寺塔(二層)、松林寺塔(一層)、王宮塔(一層)昇安寺址三層塔(一層)等인데、이들은 羅塔成立過程으로 보아 典型樣式에서 定型에 이르는 重要한 塔들이 많으며、그것도 二層에서 發見되는 例가 多數임은 特色이라 하겠고、月精寺塔에서는 水晶瓶임이 時代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하다.

容器에 記銘한例·塔婆研究에서 年代의 記錄이 거의 없었음은、隘路의

하나이라고 하겠는데, 容器에의 記銘은 塔誌石, 造塔形止記, 塔表面에의 記刻等과 더불어, 이 點을 많이 매워주고 있다. 그 例를 들어 보면,

新羅神龍二年金銅舍利函(聖德王五年)은 蓋에 墨書, 新羅敏哀大王石塔內發見蠟石小圓壺는 胴體周圍에 刻, 傳皇福寺塔舍利函 蓋裏面에 陰刻, 寶林寺南三層石內靑銅盒은 周緣에 點針刻을 하였고, 同寺北三層塔靑銅盒은 外緣에 點針刻, 令傳寺普濟尊者舍利塔은 盒周圍에 刻入,

高麗 李成桂發願銀製鍍金舍利塔內圓筒周圍에, 鷲棲寺塔舍利盒 側面과 底面에 刻入함을 본다.

以上으로 舍利藏置를 概觀하여 보았다. 두드러진 그들 特徵을 든다면, 遺物의 多樣함과 佛像에서는 如來像이 많고, 容器에서는 盒, 函다음에 瓶이, 材料上으로는 銅이 가장 많고, 銀, 金이 羅麗에서 쓰이고, 유리와 유리玉, 水晶玉等이 羅代에, 銅鏡은 羅代에, 가장 많고, 麗初까지도 걸쳐 發見되며, 錢貨類는 羅代에서만 보이며, 遺物發見塔을 地域別로 보면 韓半島의 中部以南이고, 그 以北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慶州, 扶餘, 松都附近에서 많은 點等을 들 수 있겠다. 資料의 다루기에 있어서도, 貴重한 것이나 分明치 않은 것(例컨대 海印寺塔發見)으로 傳해지는 遺物)은 取扱치 않았고, 敎理의 變遷에 따르는 內容物의 變化, 地域別로 의 比較, 舍利孔內에서의 裝置狀態, 外函 內函의 接合는 法, 石, 木, 磚 塔別로 比較, 玉類에 對한 考證 등 여러 가지로 考察해야 할 部分이 많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廣範圍한 研究가 短時日內에 이루어지리라고는 믿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同學諸位의 助言으로 資料收集에 힘쓰고, 多角的인 研究로 보다 內容을 充實히 하기에 不斷히 努力을 傾注하여, 過去 우리 文化遺産中에서도 가장 獨創적이고 韓國美의 象徴이라고 볼 수 있는 塔婆의 舍利藏置研究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

## 水鐘寺石塔內發見 金銅如來像

鄭 永 鎬

京畿道 楊州郡 瓦阜面 松村里 早谷山上腹에 水鐘寺가 位置하였다. 이 곳의 行路는 中央線便인데 兩水里에서 下車하면 南·北漢江이 合流하는 兩水鐵橋에서 西北쪽으로 마주 바라보이는 山이 早谷山이고 그 높은 中腹에 水鐘寺가 뚜렷이 보이고 있다.

傳聞한 바에 의하면 水鐘寺는 朝鮮時代初期인 世祖때 建立한 절이라고 하나 確實한 事蹟은 알 수 없으며 一說에는 그 以前에 創建되었다고도 하니 이 寺刹의 初創과 諸事蹟에 대하여는 別途로 一考의 機會가 있어 될 것 같다.

현재 境內에는 六, 一五動亂 후 새로 세운 木造建物 數棟이 있고 石造物로 浮屠 一基와 石塔 二基가 ① 中央前庭에 遺存하는데 이들 三基의 塔婆는 모두 近間에 現位置로 移建한 것으로서 그 原位置는 寺刹境內를 벗어난 곳이 있다.

卽 筆者가 水鐘寺를 처음 訪問한 것은 一九五六年 初夏였었는데 그때 石造浮屠는 西쪽으로 境內를 벗어나 山마루로 계속되는 좁 가파른 臺地에 있었고 小形의 一般型三層石塔 一基가 그 마루 밑에 보였으며 八角五層石塔은 境內에서 東쪽으로 벗어나 언덕진 평평한 곳에 建造되어 있었다. 當時 筆者의 見解로는 三層石塔은 그 位置나 部材의 組立形態로 보아 他處에서 移安한 것이 分明했으며 浮屠와 八角五層石塔은 原位置에 遺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